

익산 개최 대규모 체육대회 한달 앞으로

내달 전국장애학생체전 6개종목·전국소년체전 11개

익산을 주 개최지로 하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2019. 5. 14.~17.)과 제48회 전국소년체전(2019. 5. 25.~28.)은 주 개최지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주, 군산, 완주 등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국장애학생체전은 모두 16개 종목이며 선수와 임원 등 3,000여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개최식을 포함 6개 종목(육상, 슐런, 배드민턴, 실내조정, 탁구, 축구)이 열린다. 전국소년체전은 모두 36개 종목이며 선수와 임원 등 1만7,000여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11개 종목(육상, 야구/소프트볼, 복싱, 펜싱, 배드민턴, 축구, 배구, 에어로빅, 절인3종, 검도, 볼링)이 열린다.

먼저, 익산시는 지난 1월 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에 전국대회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체전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월 18일 부시장 주재로 주요 부서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월 13일에는 시장 주재로 양대 체전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시설·교통·홍보·숙박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고 있으며 유관기

관인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4월말에 최종보고회와 5월 현장보고회를 통하여 전부서가 완벽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18개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익산종합운동장에는 진출입 경사로 공사를 실시하고 실내체육관은 화장실 비데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보조야구장인 흙야구장에는 인조잔디와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소년체전 후에도 전국 대회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하고 있다. 익산시는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쳐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익산시는 대회기간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익산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3월부터 매일 전 부서에서 환경정비 구역을 설정하여 일제정소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꽃길조성, 노후도로 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체전을



이상춘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이 1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만들기 위해 2019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시민서포터즈와 함께 각종 행사 및 축제장에서 현장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SNS 이벤트 개최, 양대체전 홍보시설물 설치, 시민과 함께하는 휴대폰 통화연결음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익산시체육회 2019년 운영비의 전액 삭감으로 시민 참여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양대 체전 개최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익산시 공무원 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직

원으로 4명을 파견하여 전라북도체육회와 상호교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춘 경제관광국장은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전부서가 합심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 중이고, 남은 기간 빈틈없이 준비하여 최고의 소년(장애학생)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국 장애인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빛으로 물든 금마저'

익산서동축제2019 내달 3~6일 서동공원서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서동축제2019가 '빛으로 물든 금마저'를 주제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서동공원에서 일련에서 개최된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1,400년 전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로맨스와 익산을 중심으로 백제의 변영을 꿈꿨던 무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익산서동축제 2019'를 소개한다.

먼저, 익산의 안녕과 번영을 기리는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시립공물단의 공연과 무왕의 행차를 일리는 백제무사들의 퍼포먼스로 서동축제의 개막을 일린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무왕의 후예들이 '서동선발대회'를 통해 관객들과 마주하며, 개막축하공연에는 장운정, 성진우, 서지오, 비타민엔젤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이어, 축제장 중앙광장에 새롭게 조성된 무왕무에는 백제의 기마상과 사신단 유등이 배치되고, 1층 서동 주제관과 2층 전망대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백제 무왕의 출정식과 행렬을 재현한 '무왕행차퍼레이드', 서동과 함께하는 백제로의 시간여행

'서동요 전설', 용을 타고 떠나는 백제문화 탐방 '용을 타고 백제 투어' 등 대표프로그램 외에 '서동 그림책 읽어주는 마을', '서동 빛나라 방송국',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키캐기, 유물 발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빛으로 물든 금마저'라는 축제 주제에 걸맞게 금마저수지를 활용한 수상유등, 무왕무와 축제장에 세워질 다양한 백제유등, 주민들이 직접 만든 한지등과 다양한 LED 경관이 축제장의 밤을 운치 있게 밝힌다.

아울러, 미륵사지 인근 광장에 축제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수시로 운행한다. 시내에서 축제장까지는 3개 코스의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각 읍면동에는 사전신청을 통해 단체방문 버스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백제왕도 익산의 브랜드기차와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축제를 시민이 먼저 만족하며 즐기는 익산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평생교육도시' 군산시, 미래설계 교육과정 운영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한 군산시가 은퇴 후 미래설계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미래설계 교육과정은 4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매주 화요일 저녁)에 걸쳐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강사는 실생활 법률에 정통한 이인철 변호사, 국내 생애설계 전문가로 정평난 문권식 인디어컨설팅 대표 등 실무형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진행될 교육내용은 ▲은퇴준비를 위한 변화관리 ▲재무설계(자산, 부채, 세금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건강관리 ▲여가설계 ▲생활법률 ▲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로 알차게 구성돼 있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미래설계 교육과정은 군산시민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가 2019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 보건소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관내 9개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근로자대상으로 한 소통과 참여를 했다.

정형태 보건소장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돌아 보았다.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사례공유로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산단 약취 저감 전문교육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6일 정현율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자원센터(부송동)에서 약취관리지역 기업인과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산단 약취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약취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경공단 약취기술지원팀이 참여해 '약취방지법'의 이해 및 배출시설 약취방지기술을 주제로 배출시설 별 약취방지시설의 관리 기술을 교육했

고 약취 개선 우수 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표로 약취 관리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IG화력이 추진한 약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저감시설 개선, 올해 국도화하의 약취저감 활동 및 약취저감 개선 계획 등 주요 개선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함양과 시민이 체감하는 약취 관리를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또한 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익산서동축제 및 14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소년(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약취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과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익산시는 24시간 약취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간 약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올해 익산 제1·2산단 내 약취배출사업장 중 16곳에서 36여여 원을 투자해 약취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과 16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율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정병익 부교육감, 이수경 교육장 등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협의하고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교육예산

투자 확대 현황설명과 함께 외국인교육센터 설치 운영 지원,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생긴 폐교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간이나 자치단체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안전다짐대회 캠페인'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4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16일 익산역 광장에서 박철웅 부시장과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무시관행 근절 '안전다짐대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반드시 바뀌어 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침범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 2장을 올려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시행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익산=장인천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